

지역 소식통

군산의료원, 혁신우수·지역발전 행정자치부장관 표창 수상

군산의료원(원장 김영진)이 혁신우수 및 지역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행정자치부장관 표창을 받았다.

군산의료원은 지난해 전라북도 경영평가가 등급 보건복지부 운영평가 A등급, 의료 질 향상(Q)활동 우수사례 공모대상, 지역거점공공병원(Q)경진대회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

이번에는 행정자치부에서 주관한 2016년 지방출자·출연기관 발전 유공 표창을 수상함으로써 병원 운영의 우수성을 다시 한번 대내외에 입증했다.

의료원은 지난해 11월 행사에서 권고한 임직원제도를 도입해 노사간 원만한 협의를 도출하고, 보상 및 평가기준 확립·퇴직금 중간 정산 등의 주요 논의 사항에 대해서도 노사분규 없이 상호 상생의 모범을 보이고 있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영광여고, 전일제 창의적 체험활동

군산영광여고(교장 이현철)가 지난 8일 내 꿈은 내가 만든다 전일제 창의적 체험활동을 펼쳤다.

창의적 체험활동은 교과활동 외 모든 활동으로 교육과정 외 제1차시 동안의 활동뿐 아니라, 학교 인력의 다양한 장소를 탈피해 호남지역 1위(졸업생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규모 대학)를 차지하고, 전국 4년제 대학 취업률 최상위에 올랐다.

호원대는 이로써 2013년 77.7% 전국 1위, 2014년 73.1% 전국 2위, 2015년 75% 전국 최상위 등 4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 취업률을 유지하며 청년고용시장의 한파를 물리치고 있다.

취업률 상위 주요학과는 ▲간호학과 96.7% ▲국방과학기술학부 93.9% ▲작업치료학과 85.4% ▲경영학과

/군산=문정근기자

군산,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공모

군산시가 지역문화 활성화와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2017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을 공모한다.

시는 올해 사업비로 5000만원을 확보해 단체 300만원 이내, 개인은 200만원 한도 내에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21일까지이며, 신청자격은 군산시 관내에 소재를 두고 1년 이상 활동한 문화예술단체나 개인이며, 대상사업은 국악 무용 문인 미술 등 총 12개 분야이다.

기금신청을 원하는 문화예술단체 및 개인은 군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최근 1년간 활동실적을 첨부해 군산시 문화예술과에 평일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직접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문화예술과(063-454-3283)로 문의하면 된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교육

군산시가 여성농업인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영농 참여 확대에 따라 지역농업발전을 선도할 여성농업인 지도자 육성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는 오는 14일까지 12개 읍면을 순회하며 여성농업인 600여명을 대상으로 2017년 상반기 여성농업인 능력배양 교육을 추진한다.

교육에서는 국민연금공단 남지 강사의 노후 재무설계 특강과 농업기술센터 김미정 지도운영계정의 2017년 달라진 농정, 생생비우치 사업, 농기계 안전보험 가입 등 여성농업인들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주요시책 사업들을 홍보한다.

문현호 농촌지원과장은 "여성 농업인들이 지역의 리더로서 지혜와 힘을 모아 행복한 농촌을 가꾸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군산시는 농업인의 리더 육성을 위해 여성농업인 교육 사업에 역점을 두고 2월, 7월, 11월 3회에 걸쳐 능력배양 순회교육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군산=문정근기자

군산, 새만금송전철탄 건설 형사소송 3년여 공방 마침표

재판부, 주민 23명 선고유예 판결

새만금 송전철탄 건설을 둘러싸고 주민과 한전 간 3년여에 걸친 형사소송이 마침표를 찍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형사3단독 이유용 재판장은 지난 8일 송전철탄 공사를 방해하고 폭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모 씨 등 주민 27명 가운데 23명에 대해 벌금 60만원에서 300만원에 대한 선고유예를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의 유죄는 인정되지만, 대부분 송전철탄 공사현장에서 경작하거나 거주하는 주민들로 삶의 터전에 피해를 입어 공사를 반대한 점, 3년 동안 공사중지 과정에서 한전이 일방적으로 공사

에 착공한 점, 대부분 고령이고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송전철탄 공사가 사실상 마무리된 점을 참작해 선고유예 판결을 내린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와 함께 업무방해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모 씨와 김모 씨 등 2명의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는 해당 범죄가 벌금형이 없는 관계로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나머지 1명은 형 면제, 1명은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이로써 지난 2015년 9월부터 시작된 송전철탄 공사관련 주민들에 대한 100여 건의 고소에서 비롯된 형사재

판이 사실상 마무리됐다.

강경식 공동대취위 법무간사는 "주민들은 관대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를 표하며 고공분방은 주민들을 위해 1년 5개월간 송전철탄 관련한 모든 형사사건을 무료로 변론해 준 김귀동 변호사의 열정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사회적 약자인 주민들의 법률권익을 위해 매진해 온 김귀동 변호사는 "주민들의 고통받는 심정을 참작해 주신 재판부 선처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이번 판결로 주민들의 심리적 부담을 다소나마 덜게 됐다"고 말했다.

/군산=문정근기자

호원대, 2016년 4년제 대학 취업률 조사 1위

77.7% 취업률 달성... 4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 유지

호원대학교(총장 강희성)가 교육부 대학알리미에 공개된 2016년 4년제 대학 취업률 조사 결과 77.7%의 취업률을 달성해 호남지역 1위(졸업생 1000명 이상 2000명 미만 규모 대학)를 차지하고, 전국 4년제 대학 취업률 최상위에 올랐다.

호원대는 이로써 2013년 77.7% 전국 1위, 2014년 73.1% 전국 2위, 2015년 75% 전국 최상위 등 4년 연속 전국 최상위권 취업률을 유지하며 청년고용시장의 한파를 물리치고 있다.

취업률 상위 주요학과는 ▲간호학과 96.7% ▲국방과학기술학부 93.9% ▲작업치료학과 85.4% ▲경영학과

83.3% ▲패션디자인학과 81.8% ▲유아교육과 81.6% 등이다.

호원대는 학생 맞춤형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2016년 취업프로그램 만족도는 평균 90.8%의 높은 수치를 기록하며 이를 증명하고 있다.

신인상 전환을 대상으로 학습동기 운영 프로그램(HFP: How to Freshman Program, 호원프레시맨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호원대는 입학부터 취업까지 4년 동안 전라적으로 수행할 맞춤형 취업보장 코스를 소개한다.

이 과정에서 진로심리검사와 전문상

담사와의 상담을 거쳐 개인별 대학생활 진로 로드맵을 작성해 조기 취업 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강희성 총장은 "입학부터 취업까지 학생 맞춤형으로 운영되는 전라적인 취업 프로그램이 높은 취업률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며 "앞으로도 인성과 실무능력을 겸비한 훌륭한 인재를 양성하여 이들의 취업을 위해 전 구상원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호원대는 학생들의 면학을 돕기 위해 취업능력개발 장학금뿐만 아니라 창업역량장학금, 지역인재들을 위한 인당장학금, 학생활동우수장학금, 복학생을 위한 복학지원장학금 등 다양한 교내 장학혜택을 제공 중이다.

/군산=문정근기자



원광대, 졸업 중국인 유학생 제3차 동문회 개최

원광대학교(총장 김도중) 중국인 유학생 제3차 동문회가 지난 1월 말 중국 연길 백산호텔에서 개최됐다.

연변지역에서 13명의 동문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이번 동문회는 지난해 연변대에서 활동한 원광인들의 활동 보고와 함께 동문 간 우의를 다지는 시간을 가졌다.

동문회에 참석한 연변대 의학부 약학부와 미술학부, 농학부 재직 교수들은 원광대 재학시절을 회상하고, 타 대학에 없는 원광대 중국 동문회원의

로서 자긍심을 내비쳤다.

특히 중국에서 유명한 학자들에게 졸업생이 2명이나 포함됐다는 소식에 자부심을 느끼기도 했다.

한편, 지파대학을 졸업하고 연결에서 한센치과병원을 개업한 선기중 원장은 "극적인 바꿀 수 있어도 학적은 바꿀 수 없다"며, 타국에서 원광대 동문회를 갖는다는 사실이 남다른 감회를 표했다.

동문회를 주관한 이송룡 회장은 "이

곳 동문이 모교를 찾는 기회가 많이 있으면 좋겠다"며, "모교를 방문해 교수님들도 만나고, 행사 참여를 통해 양국 대학 간 교류 확대와 원광대에서 공부한 중국 학생들을 추천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제 중국 원광대 동문회는 중국 내 동문 교류 및 지한 인사 네트워크를 통해 중국 유학생 유치 지원과 모교의 대 중국교류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익산=장양원기자

전북도농업기술원, '찾아가는 전문가 강소농 현장컨설팅'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하주)에서는 농업기술 혁신과 보급을 위한 농가소득증대 일환으로 개방화대응 현장변화에 적응하고, 기후변화와 친환경농업의 전략적 대응으로 새로운 작목개발을 위한 '찾아가는 전문가 강소농 현장컨설팅'을 농진청 강소농 민간전문가와 농업기술원 전문분야별 연구·지도사 80여 명이 참여하는 현장 컨설팅을 연중 실시하여 현장 속에서 답을 찾아가고 있다.

특히, 농업의 6차 산업화를 위한 가

공기술과 가공식품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전문가 경영 마케팅 컨설팅을 매월 수요자 중심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친환경농업의 정착을 위한 첨단기술을 분야별로 전파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생산을 통한 소비자들의 유통 판매 마케팅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전달하여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함께 나누고 있다.

또한 강소농들이 경쟁력을 키우고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민간전문위원 8명은 컨설팅이 필요한 분야별 20번 티제 운영으로 연중 영농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점을 수시로 해결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

전북도농업기술원에서는 도내 농가를 중심으로 작목별 생산기술과 판매 경영기법 등 분야별 전반에 걸친 현장컨설팅을 지속추진하고 품목별 경영분석 컨설팅 프로그램을 활용한 정밀 농가경영분석 컨설팅을 실시, 농업인들로부터 신뢰받는 전문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전 직원이 하나되어 '전문가로서 정진'으로 현장활동을 강화하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장양원기자

정헌율 익산시장, 소통 행보 시동

금마면 시작 29개 읍면동 순회 소통간담회

정헌율 익산시장이 시민들에게 가까이 다가가 소통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29개 읍면동을 순회하며 소통간담회에 나섰다.

9일 오전 금마면사무소에서 열린 첫 간담회에는 지역주민을 비롯해 시의원, 기관·단체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간담회는 정헌율 시장의 2017년 시장운영 방향 설명에 이어 주민과의 대화의 시간 순으로 진행됐다.

정 시장은 2017년 7대 역점사업으로 ▲살기좋은도시 균형있는 지역발전, ▲미래생명산업 함께 조성으로 높은 농촌 ▲역사와 문화가 흐르는 매력적인도시, ▲향토산업 활성화로 지역상권 육성, ▲더불어 사는 행복의 도시 익산 ▲누구나 안심하고 살아가는 안전도시, ▲시민이 주인으로 참여하는 소통 행정 등을 강조하며 올해는 도시 복도시를 구현하는 등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성과를 내

는데 총력을 다 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이어 진행된 시장과 주민과의 대화에서 주민들은 생활 속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 시정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며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시장과의 대화의 장을 이어나갔다. 간담회에서 건의된 민원은 관리 카드화하여 부서별로 체계적 관리에 들어가고 정기적 보고회를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상황을 점검하게 된다.

정 시장은 "경기가 어렵고 정국 혼란이 지속되면서 시민들이 체감하는 삶의 무게가 더 크게 느껴질 것이다. 한 분 한 분 목소리를 경청하고 진정성 있게 소통하여 시민들의 원하는 시정을 펼쳐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주민 간담회는 9일 금마면을 시작으로 23일까지 10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익산=장양원 기자

익산시, 구제역 유입 차단 총력

익산에서 구제역 유입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들어갔다.

9일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기존 운영 중이던 AI 방역대책상황실을 5일자로 구제역·AI 방역대책상황실로 통합 운영하면서 시와 구제역 동시 차단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관내 사육 중인 소 3만 4천 두에 대해 12일까지 구제역 일제접종을 실시할 계획이다.

예방접종 후 4주가 경과되지 않았거나 2주 이내 출하예정인 소는 이번 접종대상에서 제외된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는 구제역이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 구제역 청정지역"이라며 이번에도 선제방역 추진으로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구제역은 7가지 바이러스 유형 중 현재 우리나라에서 백신접종이 실시되고 있는 '형질형 0형'으로 밝혀져 예방 접종으로 구제역을 예방할 수 있다.

익산시는 가축방역관 공무원, 공수의사 축협, 생산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백신 접종(확인)반을 편성하고 긴급 접종에 나섰다. 현장 투입 전 백신 접종반을 대상으로 접종 방법 및 요령, 준수사항, 안전사고 예방 등 사전 교육을 철저히 실시하고 있다.

정헌율 시장은 "익산시는 구제역이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는 구제역 청정지역"이라며 이번에도 선제방역 추진으로 구제역 청정지역 유지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익산=장양원기자

군산시 월명평생학습센터, 1기 수강생 모집

13일~28일까지 신청·접수

군산시 월명평생학습센터에서 3월부터 6월까지 운영되는 총 12개 강좌 200명의 수강생을 모집한다.

이번 강좌는 문화로 배우는 중국어(초급), 한국어·문인화 등 인기 강좌와 팝아트, 서양배움공예, 캘리그래피 등 실생활에서 활용 가능한 강좌를 새롭게 개설해 인문교양(22강좌), 문화예술훈(23강좌), 생활문화(43강좌), 어간강좌(43강좌) 등 총 12개의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군산시민이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고, 1인 2강좌까지 신청할 수 있다. 수강료는 4만원이며, 재료비와 교재비는 별도 부담해야 한다.

수강신청은 13일부터 28일까지 방문 인터넷(평생학습정보망)을 통해 신청 접수하며, 정원 미달 강좌에 한해 개강 전까지 추가 접수가 가능하다.

군산시 관계자는 "월명평생학습센터는 지속적인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원도심 및 지역 내 평생학습의 거점 역할을 톡톡히 수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월명평생학습센터는 2012년 10월 영회동 차량등록사업소 3층에 군산시 평생학습관으로 개관해 평생학습 문화 확산을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으며, 지난해 12월 미풍동에 군산시 평생학습관이 개관하며 월명평생학습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다.

/군산=문정근기자

익산시,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재정 신속집행

상반기 내 목표액 5079억원 중 60% 집행 기록

익산시가 경기 침체 해소와 지역경제에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지원, SOC 민간보조 사업을 중심으로 지방재정 신속집행에 적극 나선다.

시는 이를 위해 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지방재정 신속집행추진단을 구성하고, 신속집행 대상 5,079억원을 목표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긴급집행 선금 지급, 사전 절차 및 대금지급 간 단축 등 신속집행 지침을 활용하여 6월까지 대상 예산의 60%이상을 집행할 방침이다.

이를 해 9일 모든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신속집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열고 원활한 집행추진을 위한 대책을

논의했다.

이지영 익산시 부시장은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사업예산이 조기 발주를 통해 지역 내 투자가 이루어지면 직·간접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주는 만큼 앞으로 신속집행에 총력을 기울여 집행을 제고에 노력하겠다"고 당부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2016년 상반기 지방재정 조기집행 실적 목표대비 105%를 달성하여 행정자치부 우수, 전라북도 우수 단체로 선정, 재정안전티브를 지원받아 지역발전 사업과 직원후생 사업에 재투자할 바 있다.

/익산=장양원기자